

더 소싱 USA 서미트에서의 석학들의 강연 요지 <1/3>

- 코튼 혁명이 주제 -

2008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텍사스주(Texas 州)에 있는 리조트(resort) 로스트 파인즈(Lost Pines)에서 ‘더 소싱(The sourcing) USA 서미트(summit)(通稱 : Cotton Summit)’가 개최되었다. 세계 각지로부터 면업종(綿業種) 관계자 약 200명이 참가하여 각계의 제 1선(第 1線)에서 현역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게스트 스피커(guest speaker)로 초빙하여, 코튼의 미래에 대한 과제를 토의하였다. 이번 서미트에서는, 특히 전체 과제를 꿰뚫는 테마로서 코튼 혁명이 제기되었다. 그러면 지금 코튼 혁명을 살펴보려 하는데, 그것은 온 세계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미트의 첫머리 기조연설에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戰略 國際 問題 研究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민주당계 think tank)의 에릭·R·패터슨 상석 부사장(上席 副社長)은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요인인 ‘7가지 혁명’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혁명에 따른 변화를 바로 보고 도전하라

우리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금융 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地政學的 risk)와 같은 여러 문제를 맞고 있어, 그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코튼을 위한 네 가지 테마로 ‘첫째 현재의 세계 면화의 기초가 되는 7가지 혁명, 둘째 서미트보다 앞서 세계의 네 곳에서 실시한 워크숍(workshop), 셋째 이들을 이번 코튼 서미트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넷째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가’를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은 큰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원유 가격은 불안정하고 나스닥(NASDAQ)이나 다우(DOW)도 떨어졌다. 세계의 정치·경제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7가지 혁명이다.

이들 7가지 혁명 중 첫째 혁명은 인구 혁명(人口 革命)이다. 최근 2000년 동안에 지구상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그래서 경제 성장과 소비 행동의 상태나 자세가 좋은 뜻에서나 나쁜 뜻에서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 문제가 한층 더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매년 7,800만 명이 새로 태어나고 있고, 지구 위의 인구가 현재 67억 명인데 2050년에는 92억 명이 된다고 한다. 과연 이에 지구가 견딜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인류가 처음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제까지 보다는 훨씬 더 다른 세대끼리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도 큰 변화이다. 2020년에는 인구의 60%가 도시에서 생활하게 된다.

둘째는 자원 혁명(資源 革命)이다. 제일 먼저 식량 문제는 벌써부터 가격이 오르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이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자원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사회는 전혀 구체적인 앞날을 검토해 보려고도 안한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도 우리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플로 차트(flow chart)를 보면 에너지 자원의 산출국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앞으로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 문제라는 요소도 늘어나게 된다.

세 번째 혁명은 테크놀로지 혁명이다. 최신 기술이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되어 생활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기술 분야 중에서도 다음의 네 개 분야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컴퓨터 분야이다. 예컨대 최신의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자릿수의 계산도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로봇틱스(robotics) 분야이다. 인공 지능이 빠르게 응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분야이다. 이는 앞으로 서미트에서도 거론되겠지만,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후로는 나노 테크놀로지인데, 극소 칩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생물 화학 분야에서도 응용될 것이다. 이 두 분야를 융합하여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넷째 혁명은 정보 혁명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현 세계에서는 거리라는 것이 없어졌다. 인류는 매년 미국 국립 공문서관(美國 國立 公文 書館)의 7,300만 배의 정보량이 생기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 기술로, 오히려 사람들이 억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혁명은 글로벌 경제(global 經濟)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자본은 국경과는 관계없이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다. 전(前)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A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는 “글로벌 경제의 발전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겠지만 위험도 뒤따를 것이다.”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특히 생산과 소비 면에서, 큰 시프트(shift :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예컨대 2050년에는 중국이 GDP로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소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여섯째 혁명은 안전 보장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9.11 테러(terror) 이후로

미국은 큰 군사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북조선으로 대표되고 있는 핵 확산 문제도 있다. 새로 바이오-테러(bio-terror)의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후의 일곱째 혁명은 거버넌스(governance) 혁명이다. 정치의 통치 시스템이 복잡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센터(民間 center)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非政府 機構)도 많아지고 있으며, 역할도 커졌다. 그 배경으로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 國內 總生産)에서 차지하는 소비 구조의 변화이다. 예를 들면, 월마트(Walmart)가 하였듯이, 유통 업자나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환경 부하(環境 負荷)나 노동 문제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게는 더욱 더 거버넌스(governance : 企業의 內部 流通)가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 정치(現實 政治)도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7가지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과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이노베이션(innovation :技術 革新)과 계획적인 행동이 중요하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 비전(vision)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코튼 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는 “7가지 혁명에서 코튼 혁명으로”를 테마로, 애틀랜타(Atlanta),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두바이(Dubai), 홍콩에서 코튼 관계자와 토론한 워크숍(workshop)의 결과이다. 그 중에서 코튼이나 섬유 산업이 장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70%가 되어 있다고 회답하였다. 장래에 대하여 대부분이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금융 시스템이나 자원 문제의 변화가 큰 이유라는 의견이 많았다.

7가지 혁명에 대하여는, 기술 혁명이 업계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인구 문제이다. 이는 소비 시장이 커진다는 뜻에서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마이너스 요인(minus 要人)으로서는 자원 문제를 드는 사람이 많았다. 코튼 업계의 미래상(未來像)에 대하여는 낙관적인 의견이 많았고, 중립적 의견까지 합치면 80%에 이른다.

그러면 7가지 혁명 중 코튼 업계에 어느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자원·기술 그리고 거버넌스의 셋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자원 문제에서는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 환경 유지의 가능성)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기술에서는 나노 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를 주목하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하여는 정부와 비정부를 포함하여 세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를 코튼 업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최후로, 이미 도전(challenge)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람은 현재의 포로(捕虜)가 아니라, 매해(每年)를 만들어 내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7가지 혁명을 ‘코튼 혁명’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